http://dx.doi.org/10.14577/kirua.2023.25.3.1

노년기 가구형태의 변화와 선택 이유

The Changes of Living Arrangement in Elderly and Reasons for Their Choice

정 재 훈*
Jeong, Jae-Hoo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 of changes in the elderly living arrangement over the past 20 years and the reasons why the elderly choose these changes.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households aged 65 years or older in Korea. Data from the survey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ducted in 2004, 2014, 2020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 of analysis was as follows; First, since 2000, the number of elderly households living with their children has been rapidly decreasing, while the number of elderly couple households and single elderly households is gradually increasing. Second, elderly living alone appeared more in rural areas, women, older people, and elderly with low education. They are in a vulnerable position that needs help. Therefore,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should be focused on elderly single households. Finally the reason for choosing elderly single household in 2020 was that the voluntary choice by the individual accounted for a much higher rate than the unintentional choice by the children. In additi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ho arbitrarily selected the living arrangement was higher than that of the elderly who deliberately chose the living arrangement.

주 요 어 : 노인, 고령사회, 가구형태, 거주환경
Keywords : The Elderly, Aged Society, Living Arrangement, Residential Environment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에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노년기 혼자 또는 노부부만이 생활하는 노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노인의 가구형태도 가족으로부터 점차 노인 혼자 또는 부부가구 같은 독립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1] 노년기는 은퇴 등으로 공식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감소하므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또한 노년기 가족의 의미와 역할은 경제 및 신체적 부양의 의미와 함께 심리·사회적 지지 및 안정감을 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2] 그러나 자녀에게 요구되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문화적 규범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가구의 핵가족화가 대세를 이루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자리잡으면서 한 집에 사는 가구원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3]에 따르면 평균 가구원 수가 2000년 3.12명에서 2020년에는 2.37명으로 감소하였고 2040년에는 1.97명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2020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5.7%로 이미 고령사회[4]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40년에 4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가구원 수가 줄어들고 고령자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서, 이제 더 이상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거주형태는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노인 관점에서 그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 삶의 질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최근 20여 년간 노인가구형태의 세부적인 변화추이와 노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선택하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선택이 삶의 만족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령사회에서 변화하는 노인가구의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확률추출방법을 이용하여 표집된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최근 20여 년 간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정기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노인실태조사 중 2004년, 2014년, 202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노인가구형태는 1차로 표집된 자료 중에서 조사대상 노인이 직접 응답한 표본을 대상으로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Hannam University, jaehoon@hnu.kr)
이 논문은 2022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정재훈,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주거환경 및 삶의 만족도 비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9(12), 2013, p.116
2) 이윤경, 노인의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1994-2011년의 변화, 보건복지포럼, 2014, p.45
3) 통계청, 2020 고령자통계; 2020 장래가구추계, http://kosis.kr
4)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녀동거가구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에서 대리응답 및 무응답 등 결측 항목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대상자가 직접 응답한 자료만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분석은 조사항목 중에서 노인가구형태와 관련 있는 성, 연령, 학력 등 개인적 요소와 거주지역[5]만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시기별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가구형태의 변화와 그 선택 이유에 대한 항목별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노인가구형태와 가구형태 선택 이유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분산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2. 문헌고찰

2.1 노인가구형태

노인에게 주거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주거지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은 노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6] 또한 노년기에 겪는 거주형태의 급격한 변화는 환경에 대한 적응기능이 약화된 노인에게 심리적 긴장과 불안을 불러일으켜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노년기 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인학 분야에서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대해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문화이론과 형평이론을 들 수 있다. 문화이론은 그 사회의 문화가 사회구성원의 행동유형을 규정하게 된다는 것으로, 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규범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형평이론에서는 노부모와 자녀가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자원이 동등하여 형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지속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노인이 가진 자원이 부족하여 자녀에게 의존할 경우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윤현숙·윤지영·김영자, 2012)

본 연구에서 노인가구에 대한 정의는 가구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가구로 하였으며, 개별 노인이 누구와 함께 동거하는지를 기준으로 가구유형을 분류 조사하였다. 노인가구형태는 노인 홀로 사는 노인독신가구, 노부부만 사는 노인부부가구,[8] 노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동거가구[9]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자녀동거가구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로 나누어,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로 한정하여 가구형성 이유를 조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기혼자녀 동거와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2.2 노인가구형태 관련 선행연구

정부에서 노인실태조사[10]를 실시한 1994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비율은 54.7%로 노인가구 중 절반이 넘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1년 27.3%로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노인단독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1] 이러한 경향은 많은 선행연구(정경희, 2002; 오지연·최옥금, 2011; 윤현숙·윤지영·김영자, 2012; 정재훈, 2013; 박경숙·김미선, 2016)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윤경(2014)은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비율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비동거 자녀와의 거주 거리는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도보 30분 이내의 거주비율은 2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비율 또한 24.1%로, 노인의 약 절반 정도는 가까운 거리에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는 자녀가 노부모와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인근에 거주하면서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지연·최옥금(2011)은 여성이며 연령대가 높고 질환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의 노인들이 독신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박경숙·김미선(2016)은 노인가구형태 변화에서 노인단독가구[12]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은 노인의 상대빈곤이 심화되는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세대 간 동거율이 줄어들면서 가족부양이 빈곤 위험을 완충하는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노인의 빈곤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독신가구 노인과 부부가구 노인의 빈곤 위험은 크기 때문에 노인의 독립된 경제생활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ilmoth(1999)는 미국노인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독신노인은 자녀가 있더라도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 자립하여 홀로 살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연숙 등(2014)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현대사회의 노년층은 점차 자녀와 독립하여 살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부모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노인가구형태가 자녀동거가구보다는 노인단독가구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 많은 연구결과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단독가구로의 변화가 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노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상반된

5) 본 연구에서 도시지역은 행정구역상 동 단위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촌지역은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것으로 농어촌을 포함한다.

6) 정경희·이윤경·박보미·이소정·이윤환,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p.15

7) 윤현숙·윤지영·김영자,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1), 2012, p.250

8) 노인부부가구는 노부부만 사는 가구로써 조사대상자가 65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9) 자녀동거가구는 기혼자녀, 미혼자녀 및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경우를 포함하며 손자녀와만 함께 사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노인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1994년부터 4년 주기(일부 6년 주기)로 시행해오다 2011년부터는 3년 주기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11) 이윤경, 노인의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1994-2011년의 변화, 보건복지포럼, 2014, p.46 표1 참조

12) 노인단독가구는 노인들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포함한 것이다.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더 많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3. 연구결과

3.1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

최근 노인의 가구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20여 년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자녀동거가구는 2004년 34.3%에서 빠르게 감소하여 2014년 25.0%, 2020년 16.2%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2004년 37.6%에서 47.1%(2014년)로 증가하더니 2020년에는 51.1%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자녀동거세대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인들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향유하려는 욕구가 커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노인독신가구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데 2004년 22.6%, 2014년 24.2%로 가장 낮은 비율이었으나 2020년에는 31.4%로 증가하여 이제 자녀동거가구 비율을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Changes of the elderly's living arrangement (%)

가구형태	2004년	2014년	2020년
자녀동거가구	34.3	25.0	16.2
노인부부가구	37.6	47.1	51.1
노인독신가구	22.6	24.2	31.4
기타	5.5	3.7	1.3
계 (명)	100 (3035)	100 (10281)	100 (9920)

이러한 변화는 노인가구형태의 변화를 분석한 이전의 연구결과(정경희, 2002; 오지연·최옥금, 2011; 이윤경, 2014; 박경숙·김미선, 2016)에서 나타나는 변화추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윤경(2014)은 비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지만, 비동거 자녀와 이동거리 1시간 이내에 위치한 비율은 전체 노인의 약 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과 연락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단독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인이 자녀와 가구[13]는 분리되어 가고 있으나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에 따라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는 차이를 보인다. Table 2에서와 같이 2004년, 2014년, 2020년 모든 시기에 걸쳐 자녀동거가구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신가구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일과 교육을 위해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노인들은 주로 농촌에 남아 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Table 2. Elderly's living arrangement by region (%)

지역별 가구형태		2004년 (n=3035)	2014년 (n=10281)	2020년 (n=9920)
도시	자녀동거가구	39.2	27.7	17.9
	노인부부가구	34.0	45.5	50.1
	노인독신가구	20.7	23.0	30.7
	기타	6.1	3.8	1.3
농촌	자녀동거가구	28.1	19.5	11.8
	노인부부가구	42.2	50.2	53.6
	노인독신가구	24.9	26.8	33.3
	기타	4.8	3.5	1.3

성별 차이에서는 Table 3에서 보듯이 2004년, 2014년, 2020년 모든 시기에 노인부부가구에서 남자가 많았고 노인독신가구에서는 여자가 많았으며 자녀동거가구에서는 남녀간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노인부부가구에서 남자가 많은 것은 부부관계에서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은 게 일반적이고 조사대상 남성노인 중에는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여자가 노인독신가구에서 많은 것은 여자의 평균수명[14]이 대체로 남자보다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Elderly's living arrangement by gender (%)

성별 가구형태		2004년 (n=3035)	2014년 (n=10281)	2020년 (n=9920)
남자	자녀동거가구	29.8	21.3	14.0
	노인부부가구	57.9	64.6	68.7
	노인독신가구	7.0	10.4	16.1
	기타	5.3	3.7	1.2
여자	자녀동거가구	37.1	27.5	17.6
	노인부부가구	24.7	34.9	39.4
	노인독신가구	32.5	33.9	41.6
	기타	5.7	3.7	1.4

노인의 가구형태는 연령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Table 4에서와 같이 모든 시기에 연령이 낮을수록 다른 가구 유형과 비교할 때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고령층에 비해 건강이나 경제적 사정이 양호하기 때문에 부부가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노인독신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노인부부가구에서 자연스럽게 노인독신가구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자녀동거가구는 70대 연령에서 변화가 없거나 다소 감소하다가 80세 이상에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본 연구에서 가구(household)는 거주공간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고 가족(family)은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14)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성의 기대수명은 83.7세이고 여성의 기대수명은 87.8세이다.

이는 80세를 넘어서 신체적 기능의 쇠퇴와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어 자녀의 보살핌이 필요해지거나 배우자 사망 후 일부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Table 4. Elderly's living arrangement by age (%)

연령별	가구형태	2004년 (n=3035)	2014년 (n=10281)	2020년 (n=9920)
65-69 세	자녀동거가구	33.1	25.7	17.9
	노인부부가구	44.7	53.2	57.6
	노인독신가구	16.6	16.2	22.6
	기타	5.6	4.9	1.9
70-79세	자녀동거가구	33.5	23.6	13.1
	노인부부가구	35.6	48.2	54.4
	노인독신가구	25.4	24.7	31.4
	기타	5.5	3.5	1.1
80세 이상	자녀동거가구	41.5	28.0	19.8
	노인부부가구	22.3	34.5	32.3
	노인독신가구	31.1	34.8	47.1
	기타	5.1	2.7	0.8

학력별로 노인가구형태의 비율을 살펴보면, Table 5에서 보듯이 무학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노인독신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노인독신가구의 비중이 2004년 33.6%(전 연령층 평균 22.6%), 2014년 38.3%(전 연령층 평균 24.2%)에서 2020년 52.0%(전 연령층 평균 31.4%)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무학인 노인은 초등졸이나 중졸 이상의 노인들에 비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15] 노인독신가구로 살아가게 되면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쉬우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초등졸 노인에서는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점점 자녀동거가구는 계속 줄어들고 노인독신가구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노인부부가구는 2004년 44.0%에서 2014년 51.1%로

Table 5. Elderly's living arrangement by education level (%)

학력별	가구형태	2004년 (n=3035)	2014년 (n=10281)	2020년 (n=9920)
무학	자녀동거가구	37.4	26.8	20.8
	노인부부가구	23.9	31.1	25.9
	노인독신가구	33.6	38.3	52.0
	기타	5.1	3.7	1.2
초등졸	자녀동거가구	32.8	23.9	16.2
	노인부부가구	44.0	51.1	44.2
	노인독신가구	17.9	21.3	38.8
	기타	5.3	3.7	0.8
중졸 이상	자녀동거가구	31.3	24.3	15.2
	노인부부가구	51.4	58.5	60.4
	노인독신가구	10.9	13.5	22.8
	기타	6.4	3.7	1.6

15)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연간 총수입 평균은 무학 803만원, 초등졸 1023만원, 중졸 이상 191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증가하다가 2020년 44.2%로 다시 감소하여 16년 전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졸 이상의 노인은 노인부부가구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으로 저학력 노인층에 비해 가장 많으며, 자녀동거가구와 노인독신가구의 비중은 가장 낮았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저학력층에 비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2 노인의 단독가구 선택 이유

앞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년기에는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점차 노인 혼자, 또는 노부부만 사는 노인단독가구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인이 단독가구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분석하였다. 노인의 단독가구 형성이유로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 "본인의 건강", "개인(부부)생활을 누리기 위함",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자녀의 결혼", "자녀의 별거 희망", "자녀의 타지역 거주",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Table 6에서 보듯이 2004년에는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과 "자녀의 결혼" 항목이 빠진 상태에서 노인의 단독가구는 "자녀의 타지역 거주"가 46.2%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개인(부부)생활을 누리기 위함"(26.0%), "자녀의 별거 희망" (12.5%) 순이었다. 2014년에는 새로 추가된 "자녀의 결혼"(31.0%)과 "자녀의 타지역 거주"(21.4%)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2004년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다음으로 "개인(부부)생활을 누리기 위함"(15.3%),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13.3%)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자녀의 결혼"이 가장 큰 비중(30.5%)을 차지했으며 "자녀의 타지역 거주"(3.4%)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18.8%)이 증가하였다.

Table 6. Reasons for forming elderly single household (%)

구분	2004년*	2014년	2020년
본인의 경제적 능력	2.4	2.8	12.7
본인의 건강함	3.7	2.0	11.1
개인(부부)생활을 누리기 위함	26.0	15.3	16.9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	13.3	18.8
자녀의 결혼	-	31.0	30.5
자녀의 별거 희망	12.5	9.1	5.9
자녀의 타지역 거주	46.2	21.4	3.4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4.4	3.4	-
기타	4.9	1.7	0.7
계 (명)	100 (1763)	100 (7331)	100 (8188)

* 2004년 설문조사에서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자녀의 결혼" 항목은 빠져 있음.

그리고 노년기 단독가구 형성이유에서 노인의 의중을 살펴보기 위해 노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하였는지, 아니면 타의적으로 선택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단독가구 형성이유 중에서 "본인의 경제적 능력", "본인의 건강", "개인

(부부)생활을 누리기 위함",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등 4개 항목은 자의적 선택으로, 그리고 "자녀의 결혼", "자녀의 별거 희망", "자녀의 타지역 거주",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등 4개 항목은 자녀에 의한 타의적 선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7에서 보듯이 2004년에는 노인의 자녀에 의한 타의적 선택이 63.1%로 자의적 선택(32.1%)보다 훨씬 높았다. 2014년에도 큰 변화 없이 노인의 타의적 선택이 64.9%로 자의적 선택(33.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에는 이러한 현상은 역전되어 노인의 자의적 선택이 절반을 넘어서 59.5%로 자녀로 인한 타의적 선택(39.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체적인 변화를 시각적인 그래프로 살펴보면 Fig. 1과 같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노인들이 단독가구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타의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을 넘어섰다는 것은, 그동안 노년기 접어들어 노인들이 단독가구를 자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주체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한 선택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자의적 선택 이유 중에서 경제적 능력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4년 시행한 기초연금제도[16]가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Choices for forming elderly single household (%)

구분	2004년	2014년	2020년
자의적 선택	32.1	33.4	59.5
타의적 선택	63.1	64.9	39.8
기타	4.9	1.7	0.7
계 (명)	100 (1763)	100 (7331)	100 (8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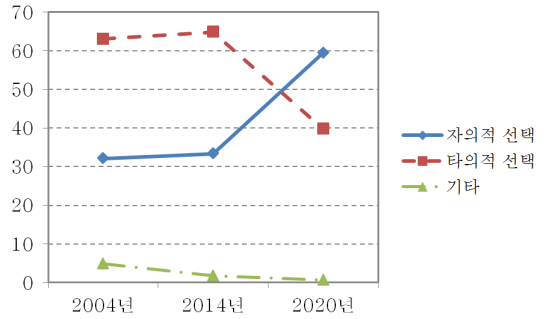

Fig. 1. Choices for forming elderly single household (%)

이러한 변화가 노인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거주지역별, 성별, 나이별, 학력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에 따라 노인의 단독가구 형성이유에 차이를 보였다. Table 8에서 보듯이 2004년에는 노인의 자의적 선택에서 농촌지역이 25.6%로 도시지역(38.4%)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2014년에는 역전되어 농촌지역이 35.5%로 도시지역(32.0%)보다 약간 앞서다가 2020년에 들어서는 농촌지역이 62.2%로 크게 높아져 도시지역(58.6%)과 좀 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년기 단독가구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8. Choices for forming elderly single household by region (%)

지역별 선택이유		2004년 (n=1763)	2014년 (n=7331)	2020년 (n=8188)
도시	자의적 선택	38.4	32.0	58.6
	타의적 선택	55.7	65.9	40.6
	기타	5.9	2.2	0.7
농촌	자의적 선택	25.6	35.5	62.2
	타의적 선택	70.5	63.2	38.2
	기타	3.9	1.0	0.7

성별로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Table 9에서와 같이 2004년에는 남성노인의 자의적 선택이 32.1%로 여성노인의 32.2%와 큰 차이가 없었다. 2014년에는 여성노인의 자의적 선택이 35.5%로 남성(30.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역전되어 남성노인의 자의적 선택이 62.1%로 여성(57.5%)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남녀간의 차이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아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9. Choices for forming elderly single household by gender (%)

성별 선택이유		2004년 (n=1763)	2014년 (n=7331)	2020년 (n=8188)
남자	자의적 선택	32.1	30.5	62.1
	타의적 선택	63.6	68.1	37.3
	기타	4.4	1.4	0.6
여자	자의적 선택	32.2	35.5	57.5
	타의적 선택	62.7	62.4	41.7
	기타	5.2	2.0	0.8

연령에 따른 노인의 단독가구를 살펴보면 Table 10에서 보듯이 2004년에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노인의 자의적 선택(65-69세 33.7%, 80세 이상 28.6%)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2014년에는 고령층에서 자의적 선택(65-69세 32.8%, 80세 이상 37.4%)이 더

Table 10. Choices for forming elderly single household by age (%)

연령별 선택이유		2004년 (n=1763)	2014년 (n=7331)	2020년 (n=8188)
65-69 세	자의적 선택	33.7	32.8	66.6
	타의적 선택	61.2	65.1	32.9
	기타	5.0	2.1	0.6
70-79세	자의적 선택	31.3	32.4	58.1
	타의적 선택	63.7	65.9	41.2
	기타	5.0	1.6	0.6
80세 이상	자의적 선택	28.6	37.4	49.7
	타의적 선택	67.7	60.9	49.1
	기타	3.7	1.6	1.2

16)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65세 이상, 하위소득 70%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높더니 2020년에는 다시 낮은 연령층일수록 자의적 선택 비율(65-69세 66.7%, 80세 이상 49.7%)이 높게 나타났다. 낮은 연령층에서 건강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의적 선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좀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학력별 노인의 단독가구 형성이유에서는 Table 11에서 보듯이 2004년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들이 자의적 선택 비율(무학 27.6%, 초등졸 32.1%, 중졸 이상 42.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4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들이 자의적 선택 비율(무학 35.2%, 초등졸 33.7%, 중졸 이상 31.4%)이 오히려 낮아졌으나 2020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자의적 선택 비율(무학 47.9%, 초등졸 55.9%, 중졸 이상 64.2%)이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학력에 따른 일관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1. Choices for forming elderly single household by education level (%)

학력별 선택이유		2004년 (n=1763)	2014년 (n=7331)	2020년 (n=8188)
무학	자의적 선택	27.6	35.2	47.9
	타의적 선택	66.9	62.9	50.9
	기타	5.5	1.8	1.1
초등졸	자의적 선택	32.1	33.7	55.0
	타의적 선택	63.3	64.7	44.1
	기타	4.7	1.7	0.8
중졸 이상	자의적 선택	42.9	31.4	64.2
	타의적 선택	56.6	67.0	35.1
	기타	4.1	1.7	0.6

3.3 노인의 기혼자녀 동거 선택 이유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에서 기혼자녀와 동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분석하였다. 자녀동거가구 중에서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선택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제외하고 무응답 등 결측사항이 있는 경우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노인이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로는 6개 항목으로 나누어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 "노인 단독가구는 외로움", "본인/배우자 돌봄 필요",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가사/육아 도움",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먼저 2004년에는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이라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24.2%), "자녀의 가사/육아 도움"(18.9%) 순이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자녀의 가사/육아 도움"(22.7%)과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22.6%)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이라는 응답비율은 17.0%로 비교적 낮아졌다. 그리고 2020년에는 다시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이라는 응답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의 가사/육아 도움"(17.4%),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 (1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는 외로움"과 "본인/배우자 돌봄 필요" 때문이라는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Table 12. Reasons for elderly to live with married children (%)

구분	2004년	2014년	2020년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	32.3	17.0	27.5
노인 단독가구는 외로움	4.4	5.9	15.4
본인/배우자 돌봄 필요	6.5	16.5	15.1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	24.2	22.6	15.7
자녀의 가사/육아 도움	18.9	22.7	17.4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9.8	14.8	9.0
기타	4.0	0.5	0.0
계 (명)	100 (682)	100 (1291)	100 (657)

노인이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 중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찾기 위해서 선택 이유가 본인에 기인한 자의적 선택인지, 자녀에 기인한 타의적 선택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본인에 기인한 자의적 선택항목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외로움", "본인/배우자 돌봄 필요",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 3개 항목을, 자녀에 의한 타의적 선택항목으로 "자녀의 가사/육아 도움",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등 2개 항목을 포함하고 자의적, 타의적 선택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 항목은 별도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대적 흐름을 보면 Fig. 2에서 보듯이 자의적 선택은 2004년 35.1%에서 2014년 45.0%, 2020년 46.2%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타의적 선택은 2004년 28.7%에서 2014년 37.5%로 증가하다가 2020년 26.4%로 다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녀동거가 당연하다는 이유는 2004년 32.3%에서 2014년 17.0%로 감소하다가 2020년 27.5%로 다시 증가하였다.(Table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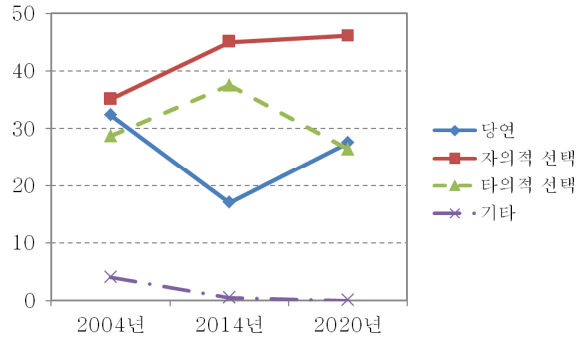

Fig. 2. Choices for elderly to live with married children (%)

Table 13. Choices for elderly to live with married children (%)

구분	2004년	2014년	2020년
당연	32.3	17.0	27.5
자의적 선택	35.1	45.0	46.2
타의적 선택	28.7	37.5	26.4
기타	4.0	0.5	0.0
계 (명)	100 (682)	100 (1291)	100 (657)

노인이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된 현재 상황에서 노인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다”는 항목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살펴보았으며 그 분석결과는 Table 14와 같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다”는 응답비율이 2004년, 2014년, 2020년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족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다”는 응답이 많아 전통적인 가족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고령일수록 일관되게 기혼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나 경제력이 약해져 자녀를 곁에 두고 싶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2004년, 2014년에는 저학력일수록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2020년에는 무학노인이 고학력 노인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는 이후 조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Table 14. Obvious choice for elderly to live with married children (%)

구분		2004년 (n=1763)	2014년 (n=7331)	2020년 (n=8188)
지역	도시	25.2	15.1	26.2
	농촌	43.8	21.4	32.2
성	남자	24.0	16.5	25.3
	여자	35.1	17.1	28.3
연령	65-69세	22.1	8.2	23.3
	70-79세	32.9	15.3	28.5
	80세 이상	45.7	23.7	28.7
학력	무학	43.0	19.2	22.0
	초등졸	23.8	17.6	34.9
	중졸 이상	17.6	12.0	22.6

3.4 노인가구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노년기 가구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비교하였다.[17]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5점 척도(‘매우 만족=1’, ‘전혀 만족하지 않음=5’)로 측정하였으며 수치가 작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는 Table 15에서 보듯이 2004년에는 노인부부가구에서 삶의 만족도가 2.71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동거가구는 2.85, 노인독신가구는 3.14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가구형태별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2020년에는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가구형태별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이전과 유사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즉 노인부부가구에서 삶의 만족도가 2.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 2.54, 노인독신가구 2.63 순이었다. 이는 노년기 가구형태별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독신가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일관되게 낮은 반면 노인부부가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역시 일관되게 가장 높았다. 이는 독신노인과 부부노인 모두 빈곤에 노출되기 쉬워 자녀와의 별거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박경숙·김미선(2016)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노인독신가구에는 해당되나 노인부부가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결과이다. 즉 노인부부가구에서는 자녀와 떨어져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

17)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삶의 만족도 항목이 빠져 있어서 삶의 만족도는 2004년, 2020년을 분석하였다.

Table 15.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elderly’s living arrangement

구분		M	SD	F-value	유의확률
2004년	자녀동거가구	2.85	1.08	38.67	0.00**
	노인부부가구	2.71	0.97		
	노인독신가구	3.14	1.04		
2020년	자녀동거가구	2.54	0.70	75.86	0.00**
	노인부부가구	2.44	0.67		
	노인독신가구	2.63	0.74		

*p<.01(both), **p<.001(both)

3.5 가구형태 선택 이유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1) 단독가구 선택 이유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노인이 혼자, 또는 노부부만 사는 단독가구를 선택한 이유에 따라 자의적 선택그룹과 타의적 선택그룹으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6과 같이 2004년에는 단독가구를 자의적으로 선택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 2.66으로 타의적으로 선택한 노인(2.91)보다 더 높았으며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p<0.01). 2020년 조사에서도 단독가구를 자의적으로 선택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2.42)가 타의적으로 선택한 노인(2.63)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에 접어들어 자녀와 떨어져 노인들만 살게 되는 경우 이를 스스로 선택한 노인이 자녀로 인해 수동적으로 선택한 노인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Table 16.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asons for forming elderly single household

구분	자의적 선택		타의적 선택		t
	M	SD	M	SD	
2004년	2.66	0.90	2.91	1.03	0.00**
2020년	2.42	0.68	2.63	0.70	0.00**

*p<.01(both), **p<.001(both)

(2) 기혼자녀 동거 선택 이유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에서도 기혼자녀와 동거를 선택한 이유가 본인에 기인한 자의적 선택그룹과 자녀에 기인한 타의적 선택그룹으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7에서 보듯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2004년과 2020년 모두 본인에 기인한 이유로 동거를 선택한 그룹에서 자녀에 기인한 이유로 동거를 선택한 그룹보다 오히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혼자녀와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가 노인에게서 기인한 경우가 자녀에게서 기인한 경우 보다 삶의 질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Table 17.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asons for elderly to live with married children

구분	자의적 선택		타의적 선택		t
	M	SD	M	SD	
2004년	2.98	1.15	2.79	1.01	0.07
2020년	2.69	0.71	2.64	0.75	0.46

*p<.01(both), **p<.001(both)

4. 결 론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의 가구형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20여 년간 노인가구형태의 세부적인 변화추이와 이러한 변화를 선택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삶의 만족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노인가구형태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가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만 사는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신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부부가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51.1%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동거가구는 점차 줄어들어 2020년 16.2%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노인가구에서 자녀동거가구는 줄어들고 노인단독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추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이 자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환경에 대한 개선과 지원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도 노인시설로의 이동을 줄여서 국가적으로도 장기적인 노인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자녀동거가구가 더 많은 반면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신가구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 차이에서는 남성은 노인부부가구에서 많았고 여성은 노인독신가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부부가구가 많은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노인독신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력별 차이는 무학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노인독신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고, 고학력 노인은 노인부부가구의 비중이 다른 학력층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독신가구가 농촌지역, 여성, 고연령, 저학력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인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오지연·최옥금, 2011)와도 유사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자원이 열악한 노인들이 오히려 자녀와의 동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형평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제 노인복지정책이 보편적 지원에서 농촌지역, 여성, 고연령, 저학력 등 취약계층이 많은 노인독신가구에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도 노인독신가구가 가장 낮은 반면, 노인부부가구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노인이 혼자, 또는 노부부만 사는 단독가구의 선택 이유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4년, 2014년에는 그 이유가 자녀로 인한 타의적 선택이 절반을 넘었으나, 2020년에는 본인에 의한 자의적 선택이 69.5%로 타의적 선택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또한 삶의 만족도의 차이로도 나타나는데, 가구형태를 자의적으로 선택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타의적으로 선택한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자녀와의 동거형태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별거형태로 노인가구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 보면 우리 사회는 자녀와의 독립적인 생활이 요구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노인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부모·자녀 간의 물리적인 동거보다는 노인이 비동거자녀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노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도구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박경숙, 김미선,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가 노인 빈곤율 변화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학, 50(1), 2016.
2. 안경숙, 노인부부가구·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1), 2005.
3. 오지연, 최옥금, 노인 가구 유형 변화와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3, 2011.
4. 원영희, 동·별거 행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1995.
5. 유성호,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17(2), 1996.
6. 윤현숙, 윤지영, 김영자,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1), 2012.
7. 이연숙, 안창헌, 이지혜, 도시 저소득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 Design Convergence Study, 13(6), 2014.
8. 이윤경, 노인의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1994-2011년의 변화, 보건복지포럼, 2014.
9. 이선희,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실태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1.
10. 정경희, 노인의 거주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2(1), 2002.
11. 정재훈,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주거환경 및 삶의 만족도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9(12), 2013.
12. 통계청, 2020 고령자통계; 2020 장래가구추계, http://kosis.kr
13. Wilmoth, J., Living arrangement transitions among America's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38(4), 1999.

접 수 일 자 : 2023. 06. 10
초 심 완 료 일 자 : 2023. 07. 07
게 재 확 정 일 자 : 2023. 07. 18